

태아형성에 따른 임신맥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혜연 · 김병수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Changes of Pregnancy Pulse During the Formation of Fetus

Hye Yeon Lee, Byung Soo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Nowadays we can take a physical examination during pregnancy by various and advanced technology instruments. But there were no instruments in old times, so the ancient doctors examined symptoms and pulse of a pregnant woma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d the pulse in Oriental medicine. Fetus and mother are connected with the umbilical cord, and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Especially, symptoms and pulse of mother change during the formation of fetus. On account of being easy to study the changes of pulse from pregnant woman, it is important to know the formation of fetus. In Western medicine, the Buddhist scriptures and Oriental medicine mentioned about the formation of fetus. Because of different viewpoints, the choice of words and formative methods are differ from field to field. Western medicine calls the formation of fetus 'development', the Buddhist scriptures call it 'Ru-tai', and oriental medicine calls it 'Yang-tai'. In spite of the different viewpoints, they have supplementary explanations to study fetus. As a result, we can understand the reasons why pregnancy pulse cannot help changing from month to month.

Key words : pregnancy pulse(妊娠脈), formation of fetus(胎兒形成), ru-tai(入胎), yang-tai(養胎)

서 론

임신은 태아가 10달 동안 자궁 안에서 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발육하는 과정이다. 태아와 모체는 탯줄로 연결되어 서로 호흡과 영양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체의 몸과 마음은 태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태아 또한 형성·변화하면서 모체에 영향을 미쳐 임부로 하여금 임신 기간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후들을 나타내게 한다. 이 증후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형성·변화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임신 기간을 알아낼 수도 있고, 월별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임부와 태아는 건강한지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임신기간 동안 임부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맥을 임신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임신 성립의 맥, 임신 월별 맥상, 출산의 맥 등으로 나누어서 이미 논문¹⁾을 기술한 바가 있다. 임부와 태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에게 나타나는 맥은 부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태아의 상태도 반영하는 것이고, 임

신 월별 맥상 또한 태아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임부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증후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태아의 상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일 월별로 나타나야 할 맥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태아 형성 과정이 정상적인 것으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태아 형성 과정에 있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임신중의 맥상 변화는 태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과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임신맥을 알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태아 형성 과정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의 형성 과정은 서양의학의 發生과 한의학의 養胎에 대한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들을 조사하던 중에 윤희사상을 중요시하는 불가의 서적에서 入胎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한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하였고, 상호 보완적인 면으로 태아 형성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저자는 임신맥이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태아 형성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서양의학·불가·한의학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태아 형성에 대하여 비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임신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 활용성이 매우²⁾ 유효함을 알 수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8/10/06 · 수정 : 2008/11/05 · 채택 : 2008/11/14

본 론

1. 임신맥

현대에는 발달된 기기들을 이용하여 임신 기간 동안 임부가 건강한지와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심지어는 초음파 등의 기기로 배속의 태아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부에 게 나타나는 증후들과 맥으로써 임신 중의 건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脈診을 통하여 임부를 진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많은 부인과 서적의 妊娠門에서 임신맥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기술하고 있다.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부인과 태아는 탯줄로써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인의 몸과 마음은 태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태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은 부인에게 임신 중의 특이증상들을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의 부인에게는 특이한 맥상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脈經』, 『婦人良方大全』, 『婦科玉尺』, 『萬病回春』 등에 기술되어 있다. 여러 문헌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임신 월별 맥상

期	월수	『脈經』	『婦人良方大全』	『婦科玉尺』	『萬病回春』
	1-2월		中指一跳一止者, 一月胎, 二跳二止者, 二月胎也.		寸微五至, 二部平勻, 久按不替.
初期	3월	임신初時, 寸微八, 呼吸五至, 三月而尺數也. 脈滑疾, 重而手按之散者, 胎已三月也.	滑疾不散胎三月, 妊娠三月, 名始胎. 此是未有定儀, 心包脈養之, 故脈見滑疾流利, 爲少氣多血, 不散爲血氣盛, 則始結爲胎也.		陰搏於湯, 氣衰血旺, 脈正相當, 肝橫肺弱, 心滑而洪, 尺滑帶散, 久按益強, 或關滑大, 代止尤忙, 洪且脈遲, 其胎必傷.
	4월				辨質, 右女左男, 或浮或沈, 疾大實兼, 左右俱盛, 胎有二三, 更審經脈, 陰陽可參, 但疾不散, 五月懷胎, 太急太緩, 腫漏爲殃.
中期	5월		脈重手按之不散, 但疾不滑者, 五月也. 五月胎已成, 受火精已成氣, 故身熱脈亂, 是無病也.		
	6-7월				胎喜實長, 沈遲而澁, 墮胎當防, 脈弦寒熱, 當暖子宮.
末期	8월	婦人妊娠七月, 脈實大牢強者生, 沈細者死. 婦人妊娠八月, 脈實大牢強弦聚者生, 沈細者死.			弦實, 沈細非良, 少陰微聚, 兩胎一傷, 勞力驚怔, 胎元難藏, 衝心悶痛, 色青必亡, 脈亂, 反是吉祥.
	足月				

2. 태아 형성

임신은 열 달 동안 태아와 임부가 탯줄을 통하여 많은 부분

들을 공유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임부는 태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임부도 태아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서 시기마다 다른 증상들을 나타낸다.

태아의 형성에 대한 내용은 한의학 외에 서양의학과 불가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태아의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서양의학에서는 발생이라는 용어를, 불가에서는 入胎라는 용어를, 한의학에서는 養胎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태아의 형성기간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에서는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40주로 나누었고, 불가에서는 수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8주로 나누었고, 한의학에서는 임신을 개월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기준이 다른 이 세 가지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태아 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각각의 내용을 인용함에는 분야마다의 용어를 살려서 표현하였고, 태아 형성 기간은 40주로 나누고, 4주를 1달로 묶어 총 4주·10달로 통일하였다.

1) 서양의학의 태아 발생

(1) 임신 1개월

첫 2주 동안에는 배란, 난자의 수정, 자유배포의 형성, 배포의 착상이 나타나고, 3주부터는 태아관이 명백해지고 체경이 분화한다. 용모막낭은 지름이 약 1 cm에 도달하고 용모막용모는 용모막낭의 주변으로 균등하게 분포되며 모체혈과 용모혈을 포함하는 용모간공간이 형성된다³⁾.

(2) 임신 2개월

3주에서 8주까지의 5주 동안이 배자의 대부분을 이루며, 거의 모든 중요한 내·외부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모든 주요 기관계통이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그 기능은 미약하다. 장기가 형성되면서 배자의 모양은 변하고, 8주가 되면 배자의 모습은 성인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진다⁴⁾. 4주말에 도달하면 용모막낭은 직경 2-3 cm, 길이 4-5 mm에 도달하고, 심장과 심막은 각 방들이 확대되어 명백해지고, 팔과 다리에 싹이 나타나고, 양막에 체경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후에 이것이 제대가 된다. 8주에 도달하면 태아는 길이가 22-24 mm가 되고 머리는 몸통에 비해서 길이가 아주 크다. 손·발가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외표가 머리의 양측에 나타난다⁵⁾.

(3) 임신 3개월

태아 두둔길이는 6-7 cm가 되고, 이 때쯤이면 子宮은 보통 치골결합 직상방에서 축지된다. 대부분의 뼈에서 화골점에 나타나며, 손·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고, 손톱과 발톱이 형성되고, 산발적인 모발의 흔적이 나타난다⁶⁾. 9주째에는 머리길이가 몸길이의 절반정도이고, 하지는 짧고 대퇴부는 작으며, 남녀의 외부생식기는 비슷하다. 10주째에는 장고리가 탯줄 근위부에 선명하게 보이다가 11주에는 복강속으로 들어간다. 12주째에는 몸길이가 2배로 성장하고, 상지는 거의 끝까지 자라지만 하지는 아직

1) 이혜연·김용찬·강정수, 임신맥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2권 4호, pp. 725-732, 2000.

2) 이혜연·김용찬·강정수, 임신맥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2권 4호, p. 730, 2008.

3)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p. 77-78, 1991.

4)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89, 1998.

5)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8, 1991.

6)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p. 78-79, 1991.

발달하지 않았으며, 외부생식기는 이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또한 태아기 초에는 대부분 간에서 적혈구를 생산하였지만, 12주말 경부터는 造血하는데 있어서 간의 기능은 줄어들면서 비장의 기능이 시작된다⁷⁾.

(4) 임신 4개월

이 시기의 태아는 성장이 매우 빠르다. 하지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골화조직이 X-ray 필름을 통해 분명하게 보이며, 난소가 분화되어 난조세포를 가진 원시난포가 출현하고, 눈과 귀가 정상위치로 근접한다⁸⁾. 16주말쯤 되면 두둔길이는 12 cm가 되고 무게는 약 100 gm 정도 된다. 외음부를 주의깊게 관찰하면 태아의 性を 구별할 수 있다⁹⁾.

(5) 임신 5개월

태아의 몸길이는 50 mm 정도이고, 무게는 300 gm이며¹⁰⁾, 상·하지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18주 정도에는 자궁이 형성되고, 질의 관형성이 시작되고, 난조세포를 포함하는 많은 원시난포가 형성되며, 20주에는 고환의 하강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후복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부는 태아기름막으로 덮여 있고, 배내숨털과 눈썹·머리털이 보인다¹¹⁾.

(6) 임신 6개월

태아의 체중은 630 gm 정도이며, 이 시기에 실질적인 체중 증가가 이루어진다. 피부는 특징적인 주름이 잡히고 그 하부에 지방조직이 축적된다. 21주 정도에는 안구의 빠른 운동이 있고, 22-23주 정도에는 진동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눈깜빡임-놀람반응이 있다. 24주 정도에는 표면활성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손톱이 생긴다¹²⁾. 비교적 태아의 머리는 이 때까지도 제법 큰 편이며 눈썹과 속눈썹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때 태어난 태아는 자기 혼자 호흡을 하려 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거의 사망한다¹³⁾.

(7) 임신 7개월

28주말이 되면 두둔길이는 약 25 cm, 무게는 1,100 gm 정도 되고, 얇은 피부는 붉은 색깔을 나타내는데 태지로 덮여 있다¹⁴⁾. 이 때에는 안구가 반응하고, 머리털과 배내숨털이 발달하며, 발톱이 보이고, 피부주름은 퍼진다. 비장에서 造血작용을 하고, 골수가 주요 적혈구 형성장소이다. 중추신경계통이 성숙되어 규칙적인 호흡운동과 체온조절이 가능하며, 폐의 공기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산하게 되면 집중치료를 통하여 살 수 있다¹⁵⁾.

(8) 임신 8개월

32주 정도가 되면 두둔길이는 28 cm 정도, 무게는 1,800 gm 정도가 된다. 백색지방이 체중의 8%를 차지하며, 상지와 하지

모두 오동통하다¹⁶⁾. 피부표면은 아직 붉은 빛은 띄고 주름이 저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아기는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보통 생존할 수 있다¹⁷⁾.

(9) 임신 9개월

36주 정도가 되면 두둔길이는 평균 32 cm 정도, 무게는 2,500 gm 정도가 된다. 피하지방조직이 축적되어 있기에 태아는 좀더 살이 찌고 그전에 얼굴에 나타났던 주름도 소실된다¹⁸⁾. 발생 35주 정도의 태아는 주먹을 꼭 쥐고 있으며 빛에 반응하고, 36주 정도의 태아는 머리둘레와 복부 둘레가 거의 같다¹⁹⁾.

(10) 임신 10개월

40주 정도가 되면 태아는 완전히 발육이 되어서 신생아의 특징적인 모습을 갖춘다. 두둔길이는 약 36 cm, 체중은 3,400 gm 정도가 된다²⁰⁾. 38주가 지나면 피부는 보통 푸르스름한 분홍색이고, 가슴과 乳房은 약간 돌출되어 있고, 머리는 몸의 1/4를 차지하고, 머리뼈는 머리 속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몸 전체에 근육이 생기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갖춘다²¹⁾.

2) 불가의 入胎

불가에서는 수정되었을 때부터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의 일생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한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에 따라 윤회되기 때문에, 수태되는 순간에 이미 전생의 정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으며, 태아가 모태에 들 때에 전생의 업에 따라 識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唐시대의 『佛說入胎藏會』, 西·晉시대의 『佛說胞胎經』, 『父母恩重經』 등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내용이 상세한 『佛說入胎藏會』²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胎 속에 들어가면 대략의 數로 말하여 38번의 7일이 있다.

- 첫 7일 ... 왕성한 熱에 북이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을 갈라람(羯羅藍)이라 하며, 형상은 마치 죽의 좁과 같기도 하고 혹은 타락의 물과도 같다.

- 2번째 7일 ... 바람이 胎에 부딪칠 때를 알부타(頰部陀)라 하는데, 그 형상은 마치 팽팽한 타락과 같기도 하고 혹은 영간소(酥)와도 같다.

- 3번째 7일 ... 閉尸라 하며, 그 형상은 마치 쇠젓가락과 같기도 하고 혹은 지렁이와 같다.

- 4번째 7일 ... 현상은 마치 짚신(鞋)과 같기도 하고 혹은 따뜻하게 달군 돌과도 같으며, 이 7일 동안에 네 가지 요소가 생긴다.

- 5번째 7일 ... 두 개의 팔과 두 개의 넓적다리(와 머리)가 그것이다.

- 6번째 7일 ... 바람이 胎에 부딪치면서 네 가지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개의 팔꿈치와 두 개의 무릎이 그것이다.

- 7번째 7일 ... 바람이 胎에 부딪치면서 네 개의 모양이 나

7)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p. 114-116, 1998.

8)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116, 1998.

9)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10)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11)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116, 1998.

12)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p. 117-118, 1998.

13)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14)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15)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118, 1998.

16)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118, 1998.

17)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18)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19)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118, 1998.

20)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p. 79, 1991.

21)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p. 118, 1998.

22) 南懷瑾 指導·李淑君 譯, 佛說入胎經今釋, 臺北, 老古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pp. 183-203, 2003.

타나는데,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다리가 그것이다.

• 8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부딪치면서 스무 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손가락 열 개와 발가락 열 개가 처음 생긴다.

• 9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부딪치면서 아홉 가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코와 입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이 그것이다.

• 10번째 7일 ... 바람이 태 안을 불룩하게 하여 마치 浮囊과 같게 되면서 공기를 가득히 채운다.

• 11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부딪치면서 胎로 하여금 환히 통하게 하여 아홉 개의 구멍이 나타나게 된다.

• 12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불면 왼편과 오른편의 대장과 소장을 만드는 것이 마치 연뿌리와 같다.

• 13번째 7일 ... 모든 양분은 배꼽으로부터 들어가 몸을 돕는다.

• 14번째 7일 ... 바람이 胎로 하여금 1,000개의 힘줄을 만들게 하는데, 몸 앞에 250개가 있고 몸 뒤에 250개가 있으며, 오른편에 250개가 있고 왼편에 250개가 있다.

• 15번째 7일 ... 스무 가지의 脈이 만들어지게 되어 모든 양분을 흡수하는데, 몸 앞에 5개가 있고 몸 뒤에 5개가 있으며 오른편에 5개가 있고 왼편에 5개가 있다.

• 16번째 7일 ... 바람이 방편을 써서 태에 있는 아이의 2개의 눈이 제자리에 박히게 하며, 이와 같이 두 귀와 두 코와 입과 목구멍과 가슴 등도 그렇게 하여 먹은 음식이 들어가 멈추고 저장되는 곳이 있게도 하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통과하게도 한다.

• 17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눈·귀·코·입·목구멍·가슴 및 음식이 들어가는 곳을 미끄럽고 윤택하게 하며, 들숨·날숨이 통하게 하는 곳도 제자리에 놓이게 한다.

• 18번째 7일 ... 업의 바람의 힘으로써 태에 있는 아이의 여섯 감각을 깨끗하게 한다.

• 19번째 7일 ... 아이의 눈과 귀와 코와 혀의 네 가지 감각을 성취하게 한다.

• 20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왼쪽 다리에 발가락 마디와 20개의 뼈가 생기게 되고, 오른쪽 다리에 20개의 뼈가 생기게 되며, 발꿈치에는 4개의 뼈가 있게 되고 발목에는 2개의 뼈가 있게 되며, 무릎에도 2개의 뼈가 있게 되고 볼기짝에도 2개의 뼈가 있게 되며, 엉덩이에는 3개의 뼈가 있게 되고 등골에는 18개의 뼈가 있게 되며, 갈비에도 24개의 뼈가 있게 된다. 또 왼손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손가락의 마디와 20개의 뼈가 생기게 되고 또 오른손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역시 20개의 뼈가 생기게 되며, 팔뚝에는 2개의 뼈가 있게 되고 팔에는 4개의 뼈가 있게 되며, 가슴에는 7개의 뼈가 있게 되고 어깨에도 7개의 뼈가 있게 되며, 목에는 4개의 뼈가 있게 되고 턱에는 2개의 뼈가 있게 되며, 이에는 22개의 뼈가 있게 되고 해골에는 4개의 뼈가 있게 된다.

• 21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몸 위에 살이 생기게 한다.

• 22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몸에 피가 생기게 한다.

• 23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몸에 피부가 생기게 한다.

• 24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피부를 광택 있게 한다.

• 25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몸에 피와 살이 더욱 불어나게 하고, 또한 윤택하게 한다.

• 26번째 7일 ... 아이의 몸에 머리칼과 털과 손발톱이 생기게 되며, 이 하나하나가 모두 脈과 서로 연결되게 한다.

• 27번째 7일 ... 바람이 태에 있는 아이의 머리칼과 털과 손발톱이 모두 다 완성되게 한다.

• 28번째 7일 ... 아이가 문득 여덟 가지 뒤바뀐 생각을 낸다.

• 29번째 7일 ... 바람이 태 안에 있는 아이에게 불어서 그 형색을 산뜻하고 깨끗하게 한다.

• 30번째 7일 ... 바람이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불어서 머리칼과 손발톱을 자라게 한다.

• 31번째 7일 ...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점차로 커지며, 이와 같이 32번째 7일 동안과 33번째 7일 동안과 34번째 7일 동안에는 더욱더 자라고 커진다.

• 35번째 7일 ... 팔다리가 완전하게 갖추어진다.

• 36번째 7일 ...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 37번째 7일 ...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가 세 가지 뒤바뀌지 않는 생각을 낸다.

• 38번째 7일 ... 바람이 태 속에 있는 아이로 하여금 몸을 움직여 아래를 향하면서 두 팔을 길게 펴고 產門을 향해 나아가게 하며,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趣下’라고 하며, 업의 힘 때문에 이 바람이 태 속의 아이에게 불어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두 다리를 위로 향하면서 잠차 產門으로 나오려고 한다. 38번째 7일이 되어 출산하려 할 때면 그 어머니가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생명이 거의 죽을 뻔하여야 비로소 태에서 나오게 된다.

3) 한의학의 養胎

『靈樞·本神』에서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 謂之神”²³⁾이라고 하고 『靈樞·決氣』에서는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²⁴⁾이라 하여 身이 형성되는 것을 언급하였고, 『靈樞·經脈』에서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度以通 血氣以行”²⁵⁾라고 하여 사람이 生함에 먼저 精이 형성된 以後에 腦髓가 生하고 骨·脈·筋·肉·皮膚·毛髮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陰陽別論』등에서 ‘有子’, ‘妊子’, ‘懷子’를 언급하고 있지만 상세하지는 않으며, 다만 『素問·奇病論』에서 “임신한지 9월에 말을 못하는 것은 十月을 채우면 낫는다.”²⁶⁾한 것으로 보아 임신 기간이 10개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태아는 열 달 동안 精을 형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차례대로 신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에는 태아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隋·唐代的 『諸病源候論』, 『千金翼方』 등에서 비로소 一月 始胎, 二月 始膏, 三月 始胎 등 月別로 태아의 명칭을 구분하기 시작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태아의 형성에 대하여 『諸病源候論』²⁷⁾, 『千金要方』²⁸⁾,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68, 1985.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168, 1985.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79, 1985.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176, 1985.

“人有重身 九月而瘳 … 治之奈何? … 無治也 當十月復”

Table 2. 한의학의 태아 형성

月別	諸病源候論·千金要方(앞부분)·婦人良方大全	千金要方(뒷부분)	外臺秘要	宋氏婦科秘書	幼幼新書	顛顛經	醫學入門	東醫寶鑑	張氏醫通	
一	始形	始胚	始胚	結胚	血凝	血凝	爲脈精血凝也	數自然凝成一粒如露珠然...謂之胚	懷其胎如螿	始胚
二	始膏...兒精成於胞裏	始膏	作胎	胚兆	胚兆	爲胎形兆分也	爲胎形兆分也	露珠變成赤色如桃花瓣子...謂之暉	成其果而象李相似	始膏
三	始胎	始胞	有血脈	陽神爲魂	陽神爲魂	陽神爲三魂動以生也	陽神爲三魂動以生也	變成男女形影如清鼻涕中有白絨相似以成人形鼻與雌雄二器先就分明其諸全體隱然可悉斯謂之胎	有形像	始胞
四	始受水精 以成血脈...兒六府順成	形體成通耳目而行經絡	形體成	陰靈爲魄	陰靈爲魄	陰靈爲七魄淨鎖形也	陰靈爲七魄淨鎖形也	男女已分 始受水精以成血形像具六府順成	男女分	始受水精以成血脈而形體成
五	始受火精 以成其氣...兒四支皆成	能動	能動	五行分五臟	五行分五臟	五行分臟安神也	始受火精以成陰陽之氣筋骨四肢已成毛髮始生	筋骨成	始受火精以成其氣而肢節充	
六	始受金精 以成其筋...兒口目皆成	筋骨立	筋骨立	六律定六腑	六律定六腑	六律定臍姿靈也	始受金精 以成筋口目皆成	髮生	始受金精以成其筋而骨幹立	
七	始受木精 以成骨...兒皮毛已成	毛髮生	毛髮生	七情開七竅通光明	七情開竅	精開竅通光明也	始受木精 以成骨皮毛已成 遊其魄能動左手	遊其魄而能動右手	始受木精以成其骨而毛髮生	
八	始受土精 以成膚革...兒九竅皆成	藏府俱	藏府俱	八景神具濟真靈	八景神具	元神具降真靈也	始受土精 以成皮膚形骸漸長 九竅皆成 遊其魄能動右手	遊其魄而能動左手	始受土精以成膚革而藏府具	
九	始受石精 以成皮毛...兒脈續續皆成	穀氣入胃	穀氣入胃	宮室羅布已定精	宮室羅布	宮室羅布以生入也	始受石精 以成皮毛百節畢備 三轉身	三轉身	始受石精以成皮毛而穀氣入胃石稟五氣之餘藏府百骸俱實	
十	五臟俱備 六腑齊通...	諸神備	百神能備而生矣	氣足萬象成	氣足象成	氣足萬象成也	受氣足五藏六腑齊通納天地氣於丹田使關節人神皆備	滿足母子分解其中	五藏俱備六腑齊通納天地之氣於丹田	

『外台秘要』²⁹⁾, 『宋氏婦科秘書』³⁰⁾, 『幼幼新書』³¹⁾, 『婦人良方大全』³²⁾, 『醫學入門』³³⁾, 『東醫寶鑑』³⁴⁾, 『張氏醫通』³⁵⁾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醫家들마다 월별로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통되는 내용도 있고, 시기별로 상충되는 내용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한편 태아의 형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주하는 經脈이나 臟腑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주하는 주체는 태아가 아닌 부인이다. 『婦人良方大全』에서는 “임신 一月에는 足厥陰脈이 養하므로 그 經을 針灸해서는 안 된다.”³⁶⁾고 하면서 임신 개월마다 관련이 있는 경맥들을 순서대로 언급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임부에게는 매달 주관하는 經脈에 침이나 뜸을 놓아서는 안 된다. 침이나 뜸을 놓으면 반드시 유산한다.”³⁷⁾고 하였다.

27) 巢元方, 巢氏諸病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143-1152, 1982.
 2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pp. 21-24, 1984.
 29) 王焘, 外臺秘要方(下), 서울, 大星文化社, p. 465, 1992.
 30) 宋林皋, 中醫婦科名著集成·宋氏婦科秘書, 北京, 華夏出版社, p. 306, 1997.
 31)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0-51, 1987.
 32) 陳自明, 婦人良方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03-305, 1985.
 33)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p. 466-467, 1989.
 34) 許浚, 對譯東醫寶鑑, 法人文化社, 서울, p. 116, 1999.
 35) 張璠,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532-533, 1990.
 36) 陳自明, 婦人良方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27, 1985. “妊娠一月, 足厥陰脈養, 不可針灸其經”
 37)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p. 1591, 1999.

데, 養하는 것은 母의 역할이며 針灸를 시술받는 대상도 母의 經脈이므로,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養하는 經脈은 모두 肝膽의 經脈으로부터 시작하여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經脈이 진행되었고, 手少陰心과 手太陽小腸의 經脈은 주하는 바가 없었으며, 『諸病源候論』, 『婦人良方大全』, 『千金要方』, 『張氏醫通』 등에는 10개월에 주하는 經脈이 없다고 하였고, 『宋氏婦科秘書』,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에서는 10개월에 足太陽膀胱의 經脈이 주관한다고 하였다.

고찰

1. 서양의학·불가·한의학의 태아 형성에 대한 비교

서양의학·불가·한의학 모두 태아의 형성 과정과 발달 단계를 중요시하였다. 내용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시기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써 태아 형성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태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와 태아가 형성되는 방법, 시기별로 형성되는 것들에는 차이점을 보였다.

서양의학에서는 태아의 형성을 ‘태아 발생’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발생은 ‘다세포 생물의 난자가 수정하여 胚·幼生을 거쳐 성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뜻으로, 다세포생물인 사람이 수정과정을 거쳐 수정란이 된 뒤, 수정란에 들어 있는 능력에

따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순서를 밟으면서 복잡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개체발생을 말한다³⁸⁾. 따라서 태아 발생은 시기별로 조직과 기관들이 형성되고, 이것들이 분화·증식하면서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때 많이 쓰인다.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산부인과 검진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생해 나가는지를 관찰하여 기형아를 조기에 분별해 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불가에서는 태아의 형성을 ‘入胎’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入胎는 ‘태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윤회한 전생의 업을 가진 존재가 모태에 들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서양의학보다 태아를 주체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 또한 태아가 성장해 나가는 동안 7일 마다 그에 해당하는 바람이 불어서 태로 하여금 몸을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하였고, ‘아이가 문득 여덟 가지 뒤바뀐 생각을 낸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가 세 가지 뒤바뀌지 않는 생각을 낸다’라고 하여 태아는 뱃속에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태아의 형성을 ‘養胎’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養胎는 ‘태를 기른다’는 뜻으로, 이는 태아뿐만 아니라 태아를 품어 10달 동안 기르는 임부도 포함된 의미이다. 한의학 小兒門에서는 아이가 출생한 이후의 생리·병리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출생 이전의 태아 형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으며, 태아에 대해서는 주로 婦人門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인과 연관지어, 임신 개월마다 주하는 經脈과 임신 기간의 섭생³⁹⁾·음식금지·약물금지·몸조리⁴⁰⁾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한의학에서는 養胎에 있어 태아와 부인을 모두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아는 水精·火精·金精·木精·土精·石精과 같이 오행과 관련이 있는 精을 차례대로 받아서 臟腑·四肢·九竅·經脈 등의 신체 기관들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불가와 마찬가지로 몸뿐만 아니라 神·靈·魂·魄과 같은 정신도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태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겼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2. 임신맥과 태아 형성의 비교

임신 월별 맥상은 개월마다 나타나는 임부의 상태를 象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임부와 태아가 주고받는 영향을 포함한 의미이기 때문에, 태아 형성에 따라 맥상에도 변화가 생긴다. 1-2개월에 나타나는 임신맥에서는 별도의 脈象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脈動이 이르는 횟수만을 설명하다가 3개월이 되어서야 脈象을 말하였는데, 이는 아직 완숙하지 못하여 배자기·始胚·胚兆라고 불리우다가 3개월에 비로소 태아·始胎·始胞라고 불리우면서 태아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월의 脈은 滑疾하지만 깊게 누르면 흠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시기는 뼈에 화골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태아의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形體가 있는 듯하면서도 아직 완벽

하지는 않은 것을 표현한 듯하다. 『婦人良方大全』 등에서는 “心包脈이 기르기 때문에 맥에 滑疾流利함이 나타나는 것이며, 少氣多血하다.”고 하여 3개월에 ‘手心主養之’하는 것이 脈象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4개월에는 맥으로 남녀와 쌍둥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태아에게 九孔이 나타나고 미숙하지만 외음부가 생기기 시작하므로, 현대에 초음파로 태아의 性を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5개월에는 疾不滑하고 깊게 눌러도 흠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미 몸의 중요한 형태가 갖추어지고, 태아가 움직이기도 하는 시기이므로 3개월 脈象과는 차이를 보이는 듯하며, 『婦人良方大全』에서는 “5개월에는 胎가 이미 이루어지고 火精을 받아서 이미 氣를 이루었기 때문에 脈象이 身熱脈亂한 것이지 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火精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脈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6개월 이후는 태아의 주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크기와 무게가 증가되는 시기로, 서양의학에서는 ‘이 시기부터는 조산해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임신맥에서는 實大牢強한 것을 좋게 여기고 沈細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며, 脈象으로 태아의 生死를 論하였는데, 이는 이미 형성기가 지난 태아를 출산 때까지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10개월의 태아는 완전히 발육되어 신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출산일에 가까워지면서 몸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장차 產門으로 나오려고 하므로, 달수를 다 채우고 脈이 어지럽게 잡히면 도리어 좋은 징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임신 월별 맥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태아 형성 과정이 개월별로 다른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맥상을 통하여 태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정상적으로 형성·발달되고 있는지, 성별은 어떠한지, 출산일이 가까워 오는지 등의 여부를 추론해볼 수 있다.

고찰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3. 임신맥의 활용

현대에는 발달되고 다양한 임신 진단 기기들을 이용하여 고대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태아 형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아 형성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는 태아 형성을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의학적 관점에 가까울 뿐이다. 또한 구조·기능상으로는 異常이 없지만 특정 장부가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조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불가와 한의학의 태아 형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태아가 신체와 정신을 갖추어나가는 내용만 언급하였지만, 한의학에서는 태아 형성 과정과 함께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증후들로서 태아와 산모의 상태 모두 살피는 것을 중시하였다.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으로 四診(望·聞·問·切)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切診의 하나인 脈診은 의사가

38)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1, 서울, 두산동아, p. 524, 1996.

39)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03, 1985.

40)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pp. 1597-1598, 1999.

脈을 통하여 환자 신체 내부의 象을 그려내는 독특한 방법이다.

태아 형성 과정에 따라 임부에게 나타나는 脈 또한 변화하므로,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妊娠脈을 통하여 태아와 임부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많은 韓醫書들의 妊娠門에서 妊娠脈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한의학에서는 임부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데 있어, 맥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 태아 형성 과정을 진찰하려는 경우,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서양 의학의 기기들과 함께 한의학의 妊娠脈을 이용한다면 서로 간에 보완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태아 형성과 임신맥의 비교

월	서양 의학	불가	한의학	임신맥
1	수정, 착상 태아판 명백, 체경분화	狀如粥汁, 或如醪漿 狀如稠糲, 或如凝酥	始胎, 血凝	中指一跳一止者, 一月胎, 二跳二止者, 二月胎也
2	배자기 중요내외부구조 형성시작	狀如鐵箸, 或如蚯蚓 狀如鞋襪, 或如溫石 現兩臂兩膝頭兩肘 兩膝	始膏, 胚兆	
3	배에 화골점이 나타남, 손·발톱 형성, 산발적인 모발의 흔적	有兩手兩脚二眼二 耳二鼻口下二穴現, 手足十指 初出, 令胎堅實	始胎, 始胞, 陽神爲魂	脈滑疾, 重而手按之散者, 胎已三月也
4	하지가 상대적으로 길어짐, 원시난포 출현, 눈·귀가 정상위치로 근접, 태아의 성 구별이 가능	有九孔現, 作一百三十節, 生一千筋	始受水精 以成血脈 而形體成, 陰靈爲魄, 男女分	辨質, 右女左男, 或浮或沈, 疾大實兼, 左右俱盛, 胎有二三.
5	상·하지가 균형을 이룸, 생식기가 형성, 배내숨털·눈썹·머리 털이 보임	作二十種脈, 眼耳鼻口咽喉胸膈 食入之處, 令其滑澤, 通出入氣息, 安置處所	始受火精 以成其氣 而肢節充, 分五臟, 能動, 筋骨成	脈重手按之不 散, 但疾不滑者, 五月也
6	체중증가의 시기, 피부에 주름이 있음, 안구가 움직임,	生指節, 身上生肉, 生血	始受金精 以成其筋 而骨幹立, 定六腑, 筋骨立	胎喜實長, 婦人妊娠七月, 脈實大牢強者 生, 沈細者死
7	피부는 태지로 덮여 있음, 안구반응, 중추신경계통성숙으로 호흡과 체온조절 가능, 폐호흡 가능, 조산한 경우 집중치료로 생존	生皮, 皮膚光悅, 血肉滋潤, 生髮毛爪甲	始受木精 以成其骨 而毛髮生, 開七竅, 毛髮生	
8	상·하지 모두 오동통함, 피부는 붉은 빛·주름, 조산해도 보통 생존	髮毛爪甲 悉皆成就 令得生長, 白黑諸光	始受土精 以成膚革 而藏府具, 八景辨具	沈細非良, 婦人妊娠八月, 脈實大牢強者 聚者生, 沈細者死
9	피하지방조직 축적, 주름 소실, 빛에 반응, 머리둘레와 목부둘레가 거의 같음	漸大	始受石精 以成皮毛 而穀氣入 胃, 宮室羅布	
10	완전히 발육되어 신생아의 모습을 갖춤, 감염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갖춤	肢體具足, 轉身向下, 長舒兩臂, 趨向產門, 令頭向下, 雙腳向上, 將出產門	五臟俱備 六腑齊通, 氣足, 萬象成	脈亂, 反是吉祥.

결론

태아형성에 따른 임신맥의 변화에 대하여 서양의학·불가·한 의학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신기간 중에 태아와 임부는 핏줄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임신맥에는 임부뿐만 아니라 태아의 상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태아가 형성·발달하는 과정에 따라 임부에게는 개월별로 다른 증후들이 나타나는데, 임신맥이 개월별로 변화하는 것도 이와 유관하다. 태아 형성에 대하여 서양의학에서는 인체 조직형성을 중요시 하여, 시기에 맞게 태아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자를 살피서 異常 발생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예방을 중시하였고, 불가에서는 사람의 업과 인연을 중요시 하면서 실질적인 형질과 함께 정신세계가 자라나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한의학에서는 태아의 형성·발달뿐만 아니라 임부가 胎를 기르는 것을 중시하였다. 임신맥은 월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임신 1-2개월에는 脈動 횟수의 변화만 있고, 3개월에는 滑疾하고 깊게 누르면 흩어지고, 5개월에는 疾不滑하고 깊게 눌러도 흩어지지 않고, 4개월에는 맥으로 男女를 구분할 수 있고, 6개월 이후에는 實大牢 강한 맥인지 沈細한 맥인지로 태아의 生死를 알 수 있고, 10개월에는 맥이 어지러운 것은 좋은 징조의 맥이다.

참고문헌

- 이혜연, 김용찬, 강정수. 임신맥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4), 2008.
-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산과학. 서울, 갈빈서적, 1991.
- 고재승 외. 인체발생학. 서울, 정문각, 1998.
- 南懷瑾 指導, 李淑君 譯. 佛說入胎經今釋. 臺北, 老古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03.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巢元方. 巢氏諸病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 王燾. 外臺秘要方(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 宋林皐. 中醫婦科名著集成·宋氏婦科秘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7.
-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 李樞.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 許浚. 對譯東醫寶鑑. 法人文化社, 서울, 1999.
-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1. 서울, 두산동아, 1996.